

남현희, 부상투혼 금메달 “시할아버지 영전에”

5월 월드컵대회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치료·운동 병행하며 아시아선수권 출전 플리레 개인·단체전 우승 통산 10번째 금메달 도중 시할아버지 별세 소식에 눈물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입고 떠난 투혼의 금메달이었다. ‘펜싱여제’는 금메달을 시할아버지의 영전에 바쳤다. 남현희(33·성남시청)는 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아시아 펜싱선수권대회 여자플리레 개인전 결승에서 전희숙(30·서울시청)을 15-1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5일 열린 여자플리레 단체전 결승에서도 전희숙, 오하나(성남시청), 김미나(인천서구청)와 호흡을 맞추며 중국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9·2010·2011·2012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5번째로 2관왕에 등극한 것이다. 통산 10번째 금메달이기도 하다. 2013년 임신과 출산으로 불참했지만, 다시 몸을 잡은 지 1년 만에 아시아 정상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9월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게임 전방도 한층 밝아졌다.

●시할아버지 영전에 바친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남현희는 2011년 11월 사이클선수 공효석(28)과 결혼했다. 시댁 가족들은 ‘주부선수’ 남현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시할아버지 고(故) 공금열 씨는 손자며느리를 애지중지하며 예뻐했다. 공효석은 한때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할아버지 댁에 머물며 선수생활을 했다. 할아버지는 공효석이 7세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선물한 분이였다. 낙담하지 않은 형편에도 손자를 위해 값비싼 자전거 용품을 사주는 데만

큰 돈을 아끼지 않았다. 공효석은 “할아버지는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였다”고 회상했다. 손자며느리에 대한 성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소한 체격(157cm)에도 운동선수의 길을 걷는 손자며느리를 항상 염려했고, 또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올해 시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남현희-공효석 부부는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손자부부였다. 지난해 4월에 얻은 딸 하이(1)를 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평을 찾았다. 틈틈이 시할아버지댁 냉장고를 반찬과 약수로 채워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던 2일 저녁... 남현희는 개인전 정상에 선 뒤 도핑테스트를 받기 위해 대기실로 향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 순간, 수많은 축하문자가 쏟아졌다. 그 가운데 후배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언니, 형부 상(喪)당했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순간 절망했다. 그 날 낮 12시47분 시할아버지가 향년 84세로 별세한 것이었다. 하지만 남현희의 시댁 가족들은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자칫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금메달의 기쁨도 잠시였다. 도핑테스트를 마친 뒤 곧바로 가평에 위치한 빈소로 향했다. 그리고 영정 앞에 말없이 금메달을 올려놓았다. 남현희는 “적적해하시다가도 중손녀인 하이를 보면 무척 좋아하셨다. 한번이라도 하이의 얼굴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부상 투혼으로 인천까지 간다!

남현희는 이번 대회 내내 부상과도 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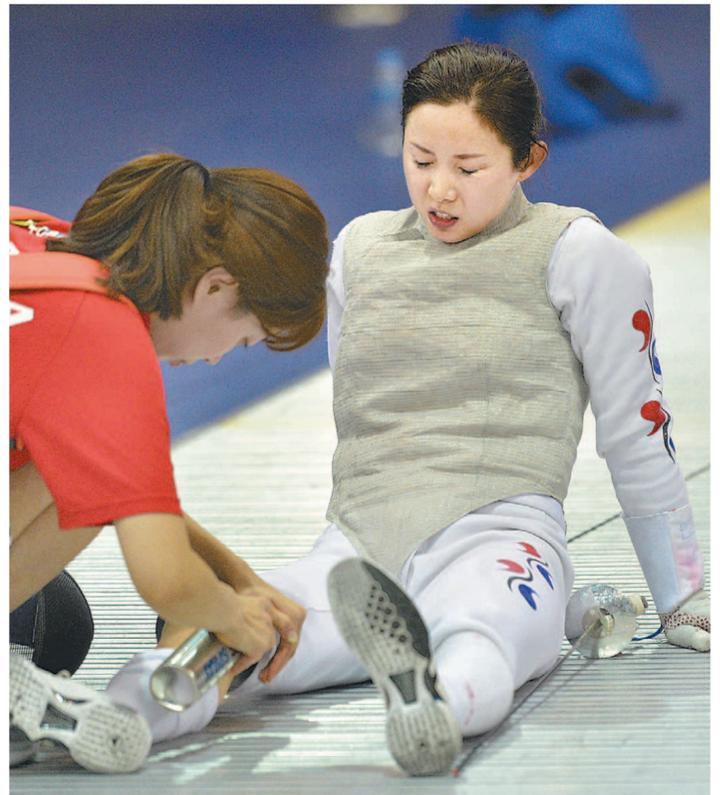
웠다.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 출전했을 때였다. 오른쪽 무릎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이른바 “똥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통증이 가시지 않아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만약 수술을 한다면, 9월 인천아시아게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무릎에 보호기를 차고, 목발을 짚으며 3주에서 3개월간 안정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시아게임에 자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남현희는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는 쪽을 택했다. 러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아시아게임의 전 초전 격인 아시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다.

남현희는 “잠기만 해도 아플 때가 있다. 운동량이 많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아시아게임을 포기할 수 없다. 현재 오전·오후·야간 운동 전에 꼬박꼬박 치료를 받으며 몸 관리를 하고 있다. 상대에게 끌려다니기보다 내가 경기를 컨트롤한다면, 체력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자플리레 최명진 코치님을 비롯해 이수근(여자사브르), 고진(남자플리레), 유상주(남자사브르) 코치님 등 대표팀 지도자 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 (2006도하대회와 2010광저우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아게임 2관왕에 도전하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플리레 개인 16강전 도중 ‘펜싱여제’ 남현희(성남시청)가 오른쪽 무릎 치료를 받고 있다. 남현희는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하며 아시아 정상에 섰고, 금메달을 이날 고인인 시할아버지의 영전에 바쳤다. 수원 | 뉴스



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원을 걸고 펼쳐지는 ‘아마하 한국경제 제57회 KPGA선수권’이 10일부터 4일간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8일 역대 우승자들이 우승트로피 앞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박도규, 김병준, 홍순상, 최윤수, 이강선, 김중태, 김형용, 김형태, 신용진. 사진제공 | KPGA

김우현 ‘7년 벽, 시즌 3승’ 넘을까

●YAMAHA 한국경제 제57회 KPGA 선수권대회

총상금 10억원 메이저대회 내일 개막 송영한·최준우·문경준 ‘무명돌풍’ 준비 지난해 상금왕 류현우 ‘명예회복’ 선언

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원을 향한 남자프로골퍼들의 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주일의 휴식을 끝낸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가 10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에서 열리는 ‘아마하 한국경제 제57회 KPGA선수권’으로 식었던 열기를 달군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시즌 개막부터 이어져온 무명들의 돌풍과 부진의 늪에 빠진 강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김우현(23·바이네르)의 시즌 3승 도전이다.

●‘무명 돌풍’ 계속될까?

올 시즌 KPGA 코리아투어에선 무명 돌풍이 거세다. 현재까지 7개 대회에서 5명의 생애 첫 우승자가 탄생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돌풍을 준비하는 무명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해 신인상을 수상한 송영한(23·신한금융그룹)과 올 시즌 2번이나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최준우(35), 그리고 데뷔 8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문경준(32·휴넷)과 이태희(30·러시엔캐시)가 또 한번의 무명 돌풍을 다짐하고 있다.

●명예회복을 노리는 강자들

무명 돌풍으로 기존 강자들은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번 대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상금왕 류현우(33)는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다. 올 시즌 우승 없이 상금랭킹 87위에 머물러 있다. 반전이 필요하다.

김태훈(29)과 김대현(26·켈러웨이)도 부활을 노린다. 5월 해피니스 송학건설오픈 준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던 김태훈은 6월 열린 2개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김태훈의 우승은 지난해 8월 보성OC클래식 이후 멈춰있었다. 2010년 상금왕 김대현도 확실한 ‘한방’을 보여줄 때다. 2년간의 미국 PGA 웨트컴투어 생활을 청산하고 컴백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경태(28·신한금융그룹)와 박상현(31·메리츠금융그룹) 등도 우승 맛을 본지 3년이 넘어 누구보다 우승트로피가 필요하다.

●김우현, 7년 만에 3승 기대

2000년 최광수(54) 이후 14년 만에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김우현은 7년 만에 KPGA 투어 한 시즌 3승에 도전한다. KPGA 투어에선 2007년 김경태와 강경남 이후 시즌 3승의 벽을 넘어선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이번 대회는 우승상금 2억원이 걸려 있는 메이저대회로, 우승할 경우 상금랭킹 1위 도약과 5년간 투어 시드 보장이라는 특전이 기다리고 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중국 “골프 한류 배울래요”

두대회 연속우승 김효주에 질문공세 골퍼문화·경기운영 등 적극적 관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는가?”

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에서 막을 내린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겸 중국여자프로골프(CLPGA) 투어 금호타이어여자오픈의 우승자 김효주(19·롯데)에게 중국 미디어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중국의 골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여자프로골프 투어는 연간 16개 대회가 열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 수준과 차이가 크다. 금호타이어여자오픈에서도 잘 나타났다. 61명의 중국선수가 출전했지만 예선 통과자는 10명에 불과했다. 내심 우승을 바랐던 평산산(25)은 공동 7위에 그쳤다. 그 때문인지 김효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컸다.

특히 올해는 한국여자골퍼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많이 보였다. 대회 기간 중 피켓을 들고 김효주를 응원하는 중국 여성팬이 목격됐고, 사인을 받기 위해 수십 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김효주는 “해외에서도 응원해주는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좋아했다.

관심은 김효주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인 장하나(22·비씨카드)와 전인지(20·하이트진로) 등 20대 초반의 선수들을 보면서 한국골프 배우기에 적극적이었다. CLPGA 미디어 담당자는 “금호타이어여자오픈은 중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한국선수들과 경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한국의 선진골퍼문화를 중국에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여자오픈의 운영을 대행한 스포티즌 심찬구 대표이사는 “CLPGA의 요청으로 대회 운영과 진행, 홍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심지어 CLPGA 투어에



중국이 한국의 선진화된 골프 배우기에 적극적이다. 6일 중국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골프 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금호타이어여자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중국의 골퍼팬들이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서 “골프대회의 운영을 맡기고 싶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경험이 부족한 CLPGA의 눈에 선진화된 한국의 투어 문화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중국골프협회(CGA) 왕리웨이 부주석은 “스폰서 기업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매끄러운 경기운영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관련 소감을 밝혔다. 필드에서 불어오는 또 다른 ‘한류’의 시작이다. 주영로 기자

이젠 ‘OK저축은행 러시엔캐시’

‘러시엔캐시 베스피드’ 프로배구단 명칭 변경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러시엔캐시 베스피드가 팀 명칭을 ‘OK저축은행 러시엔캐시’로 변경했다.

모기업 아프리카서비스그룹이 최근 인수한 저축은행의 명칭을 ‘OK저축은행’으로 확정함에 따라 배구단을 통한 효율적 홍보 강화를 위해 팀 명칭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OK저축은행은 ‘누구나 OK할 때까지’라는 긍정의 의미와 순수 한국인(Original Korean)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 팀 엠블LEM은 노란색을 기본으로 말발의 이미지를 중앙에 배치 팀의 색깔과 역사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새롭게 바뀐 팀 명칭과 엠블LEM은 19일부터 인천에서 벌어지는 KOVO컵 때부터 사용한다. ‘베스피드’는 팀 마스코트로 계속 사용한다. 김충현 전문가

박태환,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 위해 12일 귀국



박태환(사진)의 매니저먼트사인 팀지엠퍼는 호주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출전을 위해 12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8일 밝혔다. 박태환은 16일부터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리는 2014 MBC배 전국수영대회 겸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 출전에 태극마크 확보를 노린다. 박태환은 이번 선발전 자유형 100m(19일), 200m(16일), 400m(18일), 1500m(21일)에 출전할 계획이다. 또 개인혼영 200·400m에도 참가 신청을 했다.

타이스 게이, 몽트뢰유육상 남자 100m 우승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1년 동안 대회에 나서지 못했던 타이스 게이(32·미국)가 8일(한국시간) 파리에서 열린 몽트뢰유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10초04로 우승했다. 복귀 이후 2번째 100m 레이스에 나선 그는 2008베이징올림픽 남자 100m 은메달리스트 리처드 톰슨(29·트리니다드토바고)을 0.12초차로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휠체어농구대표팀, 세계선수권 예선 일본 꺾어

휠체어농구대표팀이 8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예선 2라운드 A조 첫 경기에서 접전 끝에 일본을 60-58로 꺾었다. 한국이 공식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